

태국 2021: 코로나19 위기 속 출구 없는 정치대립과 사회구조적 난제

이 미 지*

국문초록

태국의 2021년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수급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가열된 한 해였다. 4월부터 시작된 델타 변이의 확산이 제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8월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약 2만 3천명을 기록하며, 코로나 19 창궐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초기 정부의 백신 수급은 순조롭지 못했다. 이러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능력을 비판하며 2021년 2월과 8월에 야당은 빠라웃 총리와 주요 장관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번 모두 부결되었다. 한편, 2020년부터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된 반정부 운동은 코로나 19 위기의 대혼란 속에서도 8월에 재개되어 정부와 무력 충돌했다. 정부는 시위대의 요구를 일단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헌법개정에 대한 심의를 개시했지만, 현행 선거제도 및 왕실 개혁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매우 소극적이다. 이처럼 2006년 탁싌 정권에 대한 쿠데타 발발 15년째를 맞이한 2021년 태국 정치는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면에서는 델타 변이의 급속한 감염 확대에 대응하여 정부가 방콕 및 수도권을 포함한 29개주에 대해 록다운(도시 봉쇄) 조치를 취하는 등 경제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했다. 이에 회복세에 있던 경제성장률은 3분기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태국 정부는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완화하여 11월

*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조교수, leemiji@bufs.ac.kr

부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경을 개방했다. 관광산업을 촉진시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면서 국가 개방 2개월 만에 무격리 입국을 잠정 중단했다. 한편 대외관계에서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은 이른바 ‘백신외교’를 통해 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재확인시켰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태국 경제는 향후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정부가야 심차게 제시한 동부경제회랑(EEC) 개발과 같은 산업고도화 정책도 최근 몇 년 간 크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치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인 경제 양극화 및 지역별, 산업별 소득 불균형도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어, 향후 정부가 단기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백신 수급, 불신임 결의안, 반정부 운동, 태국

I. 들어가는 말

본고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와 경제, 국제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새 정부 출범 반년 만에 세계경제와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의 창궐은 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던 태국의 2021년 상황은 사뭇 달랐다. 태국에서는 2021년 4월부터 델타 변이의 확산이 시작되면서 제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었다. 신규 확진자수는 7월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8월 중순에는 하루 최고 약 2만 3,400명, 하루 사망자가 300명에 육박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이에 대한 방역대책으로 정부는 방콕 및 수도권 등 29개주에 대해 경제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록다운(도시 봉쇄) 조치를 취했다. 특히 수출 및 외국 자본에의 의존도가 높고, 국내총

생산(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태국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태국에서도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백신확보가 지연되면서 태국의 백신 접종률은 아세안 내에서 크게 뒤처졌다.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자 태국 정부는 10월부터 방역 지침을 완화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의 전환을 빠르게 준비했다. 7월부터 시행된 푸켓 샌드박스를 시작으로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63개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TEST&GO 프로그램)을 허용했다. 위축된 관광산업과 경제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기 위해 국가를 사실상 전면 개방한 것이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은 국가 개방 2개월 만에 무격리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게 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헌법개정 및 빠라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는 2021년에도 계속되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미흡한 감염병 위기관리 능력 및 백신 수급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었다. 2021년은 탁싨 총리가 2006년 쿠데타로 추방되고부터 15년째를 맞이한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끝나지 않는 이 정치대립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현 정권이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인가? 향후 헌법개정이 진전되고,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위축됐던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낙관적이지 않은 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태국 정치

1. 코로나19 제 3차 대유행과 백신 수급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지난해 코로나19의 1차 유행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방역 모범국으로 주목받았던 태국의 2021년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태국에서는 2021년 4월부터 델타 변이의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제 3차 대유행으로 이어졌다. 확진자수는 7월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8월 13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3,418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다.¹⁾ 태국은 2월 28일부터 중국의 시노백과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입하여 접종을 시작했지만, 초기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내 감염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태국 정부는 백신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설립된 세계적 협력 네트워크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불참하는 방침을 내세우는 등 백신 접종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태국의 백신 접종률은 다른 아세안 국가와 비교해도 저조한 수준이었다. 9월 4일 기준, 태국의 백신 완전접종률은 11.15%에 머물며 아세안 주요 6개국 가운데 베트남에 이어 저수준을 기록했다(西濱 2021/09/06). 세계 여러 국가가 백신 접종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자, 태국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6월에는 태국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라이선스 생산도 개시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공급량

1) 태국에서는 2020년 1월 13일 코로나19 감염자가 최초로 보고되었으며, 3월 중순이후 하루 확진자수가 2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 시기가 1차 유행기이며, 그 후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코로나19의 감염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태국은 감염봉쇄에 성공하며 신규 확진자수는 한자리 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시작되었다. 이에 12월 19일 신규 확진자수 576명이 발생하면서 2차 확산이 일어났다. 단순히 수치만을 비교해도 1차와 2차 유행에 비해 4월부터 시작된 3차 유행의 상황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12월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2022년 연초부터 4차 유행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 부족하여 중국의 시노백 백신을 대량(총 3,150만 도스) 수입하여 조달했다. 중국의 ‘백신 외교’를 통한 기증 및 공급에 더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2월 31일 시점 완전접종률을 66.4%, 1회 이상 부분접종률을 73.7%, 부스터샷 접종률을 10.6%로 끌어올렸다.²⁾

한편 정부의 미흡한 코로나19 대응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코로나19의 방역 실패와 백신 수급 지연 문제,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야당이 제출한 빠랏 쩌오차(Prayut Chan-o-cha) 총리와 장관 5명³⁾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심의가 하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2021년에 들어와 두 번째로 진행된 불신임 결의였으며, 빠랏 내각 집권 후 세 번째에 해당한다. 전체 의원 482명 중 4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불신임 투표에서는 결과적으로 6명 모두가 신임되었다. 불신임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242명의 지지가 필요한데, 빠랏 총리는 신임 264표, 불신임 208표, 기권 3표를 받았다(CNN 2021/09/04).⁴⁾ 빠랏 정권 발족 초기 여당 연립의 전체 의석수는 하원의 과반수를 겨우 넘긴 불안정한 형태였지만, 여당은 지속적으로 의석수를 늘려왔다. 2021년 9월 현재, 재적 의원 482명 중 18개 정당이 연합한 여당 소속 의원은 276명으로 확대된 반면, 8개 정당의 야당 소속 의원은 206명으로 축소되었다.⁵⁾

2)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 (검색일: 2022.01.15)

3) 불신임 투표에서는 빠랏 총리 외에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와 공중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디지털경제사회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노동부(Ministry of Labour)의 장관 5명이 포함되었다(Bangkok Post 2021/09/04).

4) 2021년 2월에도 야당은 빠랏 총리를 포함한 내각 주요 인사 10명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해 16일에서 19일에 걸쳐 투표가 진행되었지만 부결되었다. 빠랏 총리는 신임 272표, 불신임 206표로 과반의 지지를 얻어 신임되었다(Newsclip.be 2021/02/22).

5) 2019년 3월 총선거 직후 하원의원 500명 중 연립 여당 소속 의원은 254명, 야당 소속 의원은 246명이었다.

그러나 여당 연립 내 주요 인사들의 잦은 사임과 이탈 등 내부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우려가 제기되었다. 최종적으로 모든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여당 연립의 결속이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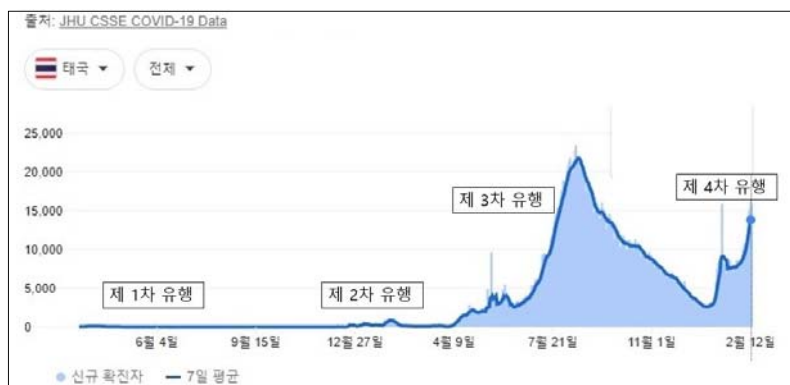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국에서는 6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 생산하고 있는데, 왕실 산하 제약회사인 싸얌 바이오사이언스(Siam Bioscience)가 담당하고 있다. 태국 공중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이 4월에 국왕 소유의 싸얌 바이오사이언스를 백신 생산 시설로 승인한 것을 두고, 야당의 주요 정치인 타나틴 쩡롱르영킷(Thanathorn Juangroongruangkit) 전 아나콧마이당 당대표가 동 제약회사의 백신 제조 경험 부족을 지적하며 계약 경위와 내용의 불투명성을 비난했다.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는 이 발언이 왕실모독죄에 해당된다고 형사고발했다(Newsclip.be 2021/07/20).

특히 7월 의료종사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주로 중국산 시노백 백신의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태국 군의 일부 인사가 모더나 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나빠졌다. 모더나 백신을 조달할 예정이었던 태국 적십자사에 군 일부 인사가 모더나 백신의 공급을 요구한 7월 23일자 서면이 SNS를 통해 유출된 것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서면이 위조된 것은 아니지만 정식 서식이 아니라고 해명했다(Newsclip.be 2021/07/26). 이처럼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태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한편,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3월 이후 대규모 반정부 집회는 전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감염을 봉쇄하지 못하고 백신 접종 또한 진전되지 않자 정부에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2021년 8월 7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연일 정점을 기록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묻는 반정부 집회가 방콕에서 진행되었다. 경찰이 최루가스과 고무탄을 발포하며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면서 무력 충돌했다(朝日新聞 2021/08/07). 이와 같이

2022년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수급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가열된 한 해였다.

<그림 1> 태국의 코로나19 감염상황 (신규 확진자수)



출처: JHU CSSE COVID-19 Data (Google 검색)

2. 출구 없는 대립과 정부의 권위주의적 대응

쁘라윗 총리는 2014년 잉락 정권에 대한 쿠데타를 주도하여 5년간의 잠정 군사정권을 이끈 후, 2019년 총선거를 통해 동년 7월 16일 정식으로 총리에 취임했다. 뿌라윗 총리가 소속된 군부계 정당 팔랑 뿌라차랏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소정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현 정권을 이끌고 있다. 민간정부로서 뿌라윗 정부 발족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태국의 정치적 상황은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민간정부 복귀 후에도 계속되는 뿌라윗 정부의 집권을 두고 사실상 군사정권의 연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2월부터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청년층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반정부 집회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을 계기로 정부가 행동규제를 강화하면서 일시적으로 주춤했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했던 헌법

개정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시위는 재개되었는데, 기존의 왕실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개헌 요구에 더해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움직임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에 촉발된 이 반정부 집회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이 집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1973년 학생운동 이후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그들은 총리 퇴진 및 헌법개정을 넘어서 전례 없던 왕실 개혁을 요구하면서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 받았다. 그들이 요구하는 왕실 개혁은 “누구도 왕을 고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 6조의 폐지, 형법 112조(왕실모독죄)의 폐지, 2018 왕실재산법의 폐지, 국왕 직속 부대 및 추밀원 등 폐지, 국왕의 쿠데타 승인 금지 등으로 구체적이다(김홍구·이미지 2021: 90-91). 군사정권 하에 제정된 2017년 현행 헌법에서는 국왕이 섭정을 두지 않고 해외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등 국왕 개인의 권한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현 정권은 왕실 재산 관리의 권한을 국왕에게 부여하고, 국군 부대의 일부를 국왕 직속으로 이동시키는 등 와차라롱껀(Maha Vajiralongkorn) 국왕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김홍구·이미지 2021: 89).

쁘라윿 총리는 일단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행의 선거제도 및 왕실 개혁에 매우 소극적이다. 헌법개정에 대한 절차가 2020년 말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등 진전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2021년 3월 17일에 이루어진 상하 양원 합동의회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초안을 검토하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면서 부결되었다. 앞서 3월 11일에 헌법재판소는 헌법기초위원회의 설치에 합법이지만, 그 전에 국민투표를 통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었는데, 여당이 이를 인용했다. 즉 동 헌법기초위원회의 설치에 찬성하지만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반대한 것이다. 국민투표를 실시한 후에 국회 심의에 다시 들어갈 경우 개정 논의까지만 최대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日本經濟新聞 2021/03/18). 한편 2021년 12월 말 하원의장 추언 립파이(Chuan Leekpai)는 의원 및 정당 선출과 관련된 선거제도의 법률 개정안을 2022년 1월에 열리는 하원의제에 포함시킬 것임을 밝혔다(Naewna 2021/12/24). 그러나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 시위대가 요구하는 정도의 핵심내용에 대한 개혁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256조는 상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헌법개정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256조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실시마저 의무화되어 있다. 여야는 본격적인 개정안 논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제256조의 개정과 헌법기초위원회의 설치에는 합의했지만, 향후 제256조의 개정과 국민투표, 헌법기초위원회의 발족, 심의 과정을 거쳐 새헌법이 공포되기까지 그 여정은 길다(船津・塚田 2021: 267-268). 헌법개정 작업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한편, 반정부 집회에 대한 정부의 권위주의적 대응은 국제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비상사태를 계속해서 연장하고, 형법 112조(왕실모독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집회를 규제하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는 2020년 3월 26일에 처음 선포되었지만, 감염병 확산 유무에 상관없이 현재 2022년 1월 31일까지 15차례 연장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태국 정부는 비상사태 선언에 기초하여 국민을 두렵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비상사태에 관한 오해를 초래하는 등 정부의 신용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뉴스의 보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⁶⁾ 이러한 뉴스를 보도한 웹사이트

6)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Freedom in the World 2021'에 따르면, 태국은 100점 만점에 30점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트는 봉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 명령에 대해 태국 네셔널프레스 평의회, 태국 뉴스방송 평의회, 태국 저널리스트협회 등 6개 주요 언론단체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공동성명을 냈다(Newsclip.be 2021/07/31). 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에 있었던 탐마삿 대학 관련 학생 시위에 참가한 주요 3명에 대해 ‘군주제 전복의 시도’로서 헌법위반이라고 11월 10일에 판결했다. 즉 태국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3명 중 파누사야 셋티찌 라와따나꾼(Panusaya Sithijirawattanakul, 1998년생)은 2020년 8월 10일 ‘탐마삿과 시위 연합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왕실 개혁과 관련하여 10가지 요구 사항이 담긴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는 2020년 영국 BBC가 뽑는 ‘올해의 여성 100인’에도 선정되는 등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 판결에 대해 군주제의 전복이 아닌 군주제의 ‘개혁’을 요구한 것임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처럼 태국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왕실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에 대해서 왕실모독죄를 적용하면서 봉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6월부터 빨라웃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집회가 방콕에서 재개되었으며, 감염자가 폭증한 8월에도 시위는 격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9월 19일에는 방콕에서 탁썬 전 총리를 지지하는 탁썬파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며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日本經濟新聞 2021/09/19).

권리 점수(Political Rights score)는 40점 만점에 5점, 시민적 자유 점수(Civil Liberties score)는 60점 만점에 25점으로 나타났다.

3. 차기 총리 후보에 대한 여론

국립 쑤언두셋 대학(Suan Dusit University)이 2021년 10월에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선에서 가장 의석수를 많이 획득할 것 같은 정당으로 탁썬과 정당인 프어타이당이 32.9%의 지지를 받아 1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야당 제 2당 까우끌라이당⁷⁾이 25.2%, 빠라우 총리의 팔랑쁘라차랏당이 24.6%였다. 즉 약 58%가 야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총리로 원하는 인물에 대한 질문에는 까우끌라이당의 당대표인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1981년생)이 28.7%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어서 빠라우 총리가 21.3%로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프어타이당의 여성 정치가 쑤다랏 께유라판(Sudarat Keyuraphan)이 19.4%로 3위를 차지했다. 그 외 아피셋 웨차치와(Abhisit Vejjajiva) 전 민주당 당대표가 8.8%, 탁썬 친나왓(Thasin Shinawatra) 전 총리의 전 부인 쏫짜만 다마퐁 (Potjaman Damapong)이 6.1%였다(Newsclip.be 2021/11/02). 즉 정당에서는 최대의 지지를 받은 프어타이당이 총리로 적합한 인물에서는 20%의 지지도 받지 못한 것은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물이 부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국립개발행정대학원 NIDA(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가 12월에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36.4%가 총리로 적합한 인사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빠라우 총리가 16.93%, 피타 까우끌

7) 까우끌라이당은 2020년 2월 헌법재판소가 정당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 해산시킨 아나콧마이당의 이념을 이어받아 창당되었다. 아나콧마이당은 타나틴 당대표가 중심이 되어 2018년 설립되었는데, 군사정권(2014-2019년)이 작성한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현 헌법의 개정, 쿠데타를 반복하는 군의 개혁, 왕실모독죄 개정 등을 촉구하며 방콕 청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2019년 하원선거에서 81석을 획득하면서 탁썬과 야당 프어타이당과 여당 팔랑쁘라차랏당에 이은 제 3당으로 부상했다.

아이당 당대표가 10.74%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10.55%가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로 프어타이당의 패텅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을 지목했다는 것이다. 패텅탄은 탁썬 전 총리의 차녀인데, 2021년 10월 28일 태국의 동북부 컨겐에서 개최된 프어타이당의 전당대회에서 당의 혁신을 위한 수석 고문(chief adviser)으로 임명되었다(Bangkok Post 2021/10/28).⁸⁾ 한편 해외 망명 중인 탁썬 전 총리가 1월 4일 음성기반 SNS 클럽하우스(Clubhouse)를 통해서 2022년 연내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 받았다(Bangkok Post 22/01/06). 이처럼 패텅탄의 등장 및 탁썬 귀국 이슈는 정치권을 들썩이게 했다. 그들의 향후 정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Ⅲ.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

1. 코로나19의 제 3차 대유행과 태국 경제

태국은 2021년 경제회복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1년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태국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발목을 잡았다. 국내외 여러 기관들은 태국의 2021년 경제성장을

8) 프어타이당 전당대회에서 쏘똥 아먼위왓(Sompong Amornvivat) 당대표가 퇴임하고, 후임으로 의사이자 과거 잉락 친나왓(Yingluk Shinawatra) 정부에서 보건부 차관을 역임한 적 있는 촌라난 씨깨우(Chonlanan Srikaew, 1960년생)가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되었다(Nationtv 2021/10/28). 한편 6월 18일에 팔랑쁘라차랏당의 전당대회도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과거 헤로인 밀수 범죄에 연루되어 호주에서 징역을 살았다는 의혹이 있는 농업부 차관 타마낫 프롬파오(Thamanat Prompow, 1965년생)가 당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Newsclip.be 2021/06/19).

전망치를 수차례 하향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크룽씨 리서치(Krungsri Research)는 2021년 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예상했다. 외수시장의 회복에 따른 수출 및 민간투자 등의 분야에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봤다. 참고로 2020년 경제성장률은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하여 -6.1%를 기록하면서 큰 하락을 경험한 바 있었다(船津・塚田 2021: 270). 2021년 실질 GDP 성장률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1-3월)는 전년 동기 대비 -2.6%였지만, 2분기(4-6월)는 7.6%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델타변이에 의한 3차 확산의 영향으로 개인소비 및 수출이 감소하면서 3분기(7-9월)는 -0.3%로 다시 마이너스 전환했다(MUFG 2021/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8월 중순 태국에서는 연일 2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3차 유행이 확산된 방콕 및 수도권을 포함하여 29개주에 대해 8월 3일부터 록다운 조치를 취했다. 지역별 통제 등급을 6개 등급, 즉 최대엄격통제구역(Dark Red Zone), 최대통제구역(Red Zone), 통제구역(Orange Zone), 특별감시구역(Yellow Zone), 감시구역(Green Zone), 관광재개구역(Blue Zone)으로 분류하여 엄격한 방역지침을 적용했다. 특히 확진자가 폭증한 8월에 방콕 및 수도권 등 29개주가 최고 등급인 최대엄격통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은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통행이 금지되었고, 생필품 및 식료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및 약국 외 시설의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배달 외의 식당 방문 및 포장도 허용하지 않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실시되었다.

태국의 기간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⁹⁾은 전년에 이어 극심한 타

9) 태국에서 국제 관광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1%에 달하며, 국내 관광수입까지 포함하면 19.7%에 이른다. 또한 관광 관련 업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약 21.4%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산업은 태국 경제를 지지하는 주요 산업이다(自治體國際化協會 シンガポール事務所 2021: 11).

격을 입었다. 2020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83% 감소한 약 670만 명이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이 국경을 봉쇄하기 전인 1월부터 3월까지 입국한 수치이다. 2021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외국인 관광객 수는 35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1년 태국 정부는 감염병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장기간의 입국 규제로 인해 침체한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세계적인 관광대국 태국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단연 아시아 최고 수준이며, 국가 경제에서 관광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크다. 태국은 2020년 3월 26일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바 있었다. 2020년 7월부터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한 데에 이어, 특별관광비자(Special Tourist Visa: STV)를 마련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장기 체류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관광을 재개했지만(김홍구 · 이미지 2021: 98), 2020년 12월부터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확산이 시작됨에 따라 가시적 성과는 미미했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본격적인 개방은 2021년 7월 1일 푸켓에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푸켓을 방문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는 샌드박스를 실시했다. 격리없이 섬 내부 여행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푸켓에서 14일을 체류하면 이후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단, 태국 도착 직후와 6일차, 13일차 등 모두 3번의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후 샌드박스는 적용지역을 수랏타니, 팡응아, 크라비로 확대했다.

푸켓 샌드박스가 시행된 7월 1일부터 2개월간의 성과는 사실 기대에 크게 미치지지는 못했다. 이 기간 동안 총 2만 6,400명의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이 푸켓을 방문했으며, 16억 3,400만 바트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윤장욱 2021/10/07). 푸켓 샌드박스의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태국 내 입국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해외 여러 국가에서 여전히 해외여행 규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귀국 후의 격리 의무, 직항노선 및 항공 편수의 축소 등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푸켓 입국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해야 하며, 출발 72시간 전 코로나 음성 영문증명서, 입국허가서, 10만 달러 이상의 보험(11월부터 5만 달러) 가입이 필요하다. 숙소는 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및 위생에 대한 품질 인증 제도인 SHA+(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Plus)를 승인받은 호텔 및 AQ(Alternative Quarantine) 격리호텔 등을 미리 예약해야 하며, 태국에 체류하는 동안 수차례 진행되는 PCR 검사도 부담이 된다. 즉 입국 규제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경비적 측면을 포함하여 다방면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8월 중순을 정점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9월 1일부터 방콕을 포함한 29개주에 대한 록다운 조치가 일부 해제되며 경제활동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11월 1일부터 방콕과 푸켓, 크라비, 팡응아 등 4개 지역의 식당에서의 음주를 허용했으며, 야간 통행금지도 해제되었다. 샌드박스에 이어 11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한국을 포함하여 63개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14일 경과)를 대상으로 방콕 등 9개 지역에서의 의무 격리 기간을 해제했다.¹⁰⁾ 이와 함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전 입국승인 시스템인 타일랜드 패스를 도입했다.

이렇게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 무격리 입국 프로그램인 TEST&GO를 통해 태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증명서, 출발 72시간 전 PCR 검사 음성 영문진단서, 5만 달러 이상 보장되는 보험 가입, 호텔 예약증, 항공 예약증 등이 필요하다. 단 입국 직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호텔에서 1박 격리가 필요하며, 한국인의 경우 45일까지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입국과 관련된 정보는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및 한태 교류센터(KTCC)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참조했다.

약 8만 명이었으며, 한국에서도 약 3천 명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성과이다. 크룽씨 리서치(Krungsri Research)에 따르면, 2021년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35만 명으로 예상되며, 2022년 750만 명, 2023년 2,100만 명, 2024년 3,500만 명을 예측하고 있다. 즉 2025년이 되어서야 코로나19 이전의 4,000만 명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Krungsri Research 2022). 그러나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관광산업의 회복 시기는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2월 6일에 최초로 보고되었는데,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며 4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¹¹⁾ 12월 21일 태국 정부는 샌드박스(푸켓, 쭈랏타니, 팡응야, 크라비)를 제외하고, 6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TEST&Go)의 타일랜드 패스 신규 발급을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태국 입국 시 백신 접종 완료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간의 격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12월 말 3,000명 전후로 진정된 신규 확진자수는 2022년 1월 중순 8,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태국보건부는 백신 3차 추가 접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추가접종 간격을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로 단축시켰으며,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의 3차 무료 접종을 시작했다.¹²⁾

한편,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더해 홍수 피해까지 겹치면서 태국

11)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월 14일 기준 8,1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해외입국 사례는 242명이었다. 이로써 태국 내 누적 확진자는 총 230만 8,615명으로 나타났다(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2/01/14).

12) 본고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1월 20일, 태국 정부는 2월 1일부터 전 세계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도착 당일과 5일차에 PCR 검사가 필요하다. 참고로 2022년 2월 22일 기준 신규 확진자수는 2만 1,232명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대규모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 태국에서는 9월 하순 이후 많은 양의 비로 인해 짜오프라야 강이 범람하면서, 전체 77개 지역 중 30개 지역, 30만 세대 이상이 침수되는 등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東京新聞 2021/10/13).

알려진 바와 같이, 태국은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을 고도화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한 빠라웃 정부는 군사정권 때의 2016년부터 Thailand 4.0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동부경제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 EEC)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있다. Thailand 4.0과 함께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사업으로서 태국 정부는 2021년 1월에 'BCG (Bio-Circular-Green, 바이오-순환-그린) 경제'를 국가 의제로 채택했다. BCG 경제의 4대 핵심 산업으로는 농업 및 식품, 의료 및 웰니스, 에너지·소재·바이오 화학, 관광 및 창조경제가 선정되었다(김민수 2021/07/21). 동 전략을 통해 태국은 향후 환경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존의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지식집약형 산업으로의 이행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고도화 정책은 외국 자본의 투자에 크게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2021년 분기별 투자위원회(BOI) 외자 승인금액은 1분기(1-3월) 625억 바트와 2분기(4-6월) 644억 바트에서 3분기(7-9월)에는 390억 바트로 감소했다. 대신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분기 620억 바트에서 2분기에는 2,167억 바트로 크게 증가했으며, 3분기는 934억 바트였다. 태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MUFG 2021/12).¹³⁾

한편, 태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의학적 용도로만 허용하던 대

13) 태국 투자위원회(BOI)에 따르면, 2021년 투자 신청은 1,674건, 신청액은 6,426억 8,000만 바트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그중 외국인직접투자(FDI)는 783건, 4,553억 3,100만 바트였으며, 국가별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순이었다.

마 및 전통약재 그라탐을 음식 및 화장품 성분으로도 사용하도록 합법화했다. 태국은 2018년에 아세안 국가 중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주목받았는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마를 활용한 식음료 및 에너지 드링크, 스킨케어, 스파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침체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마 관련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2. 국제관계 및 한-태관계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이후 왕실모독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국제사회는 우려했다. 2021년 11월 방콕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 8개국 대표단이 형법 112조에 대한 개정을 태국 정부에 촉구했다(연합뉴스 2021/11/11).

한편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온라인을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The Summit for Democracy)를 개최했는데, 태국은 초청받지 못했다. 미국 외교부는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중 110개 국가 및 지역을 초청했으며, 83개국은 초청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태국과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등이 초대받지 못했다. 아세안 국가 중 초청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뿐이었다. 태국이 초대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 빠라웃 총리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Newsclip.be 2021/11/25).

미국의 중국 견제가 격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은 태국과 여전히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2014년 군사정권 발족 당시 중국이 사실상 지지를 표명하면서 정치, 안보, 경제 분야에서 양국은 밀접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2021년은 중국의 이른바 ‘백신 외교’가 큰 역할을 했다. 태국은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의 라이선스 생산을 확정했지만, 초기 백신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국의 시노백 백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¹⁴⁾ 해외에서 시노백 및 시노팜 등 중국 백신의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태국에서도 교차접종 및 추가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2021년은 한국과 태국 양국에 있어서 문화적 측면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한 해였다. 전년에 이은 코로나19 위기 속 경제적, 인적 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반종 피산다나쿤(Banjong Pisanthanakun) 태국 감독의 영화 ‘랑중’이 큰 인기를 획득한 데 이어, 태국에서는 도쿄 올림픽에서 태국 역사상 최초로 태권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또한 한국의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태국 출신 멤버 리사(LISA)가 9월 10일에 유튜브(YouTube)에 처음 공개한 첫 솔로곡 ‘LALISA’가 조회수 4억 뷰(2022년 1월 기준)를 돌파했는데, 특히 태국 내에서의 인기는 대단했다. 블랙핑크 총리는 라리사의 뮤직비디오 속에 등장하는 태국의 우수한 문화를 언급하며, 대중문화를 통해 태국을 알리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태국 경제의 부흥을 기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Bangkok Post 2021/09/14). 반면 같은 태국 출신 시탈라(SITALA)의 한국 걸그룹 하이키(HI-KEY) 데뷔를 앞두고 태국 내에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한국에서도 주목받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의 부친이 과거 2014년 쿠데타를 지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Bangkok Post 2021/12/01). 이러한 두 아이돌에 대한 태국 내 엇갈린 반응은 안타깝게도 현재 태국이 직면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 상황이 표출된 것이라고 해

14) 한국도 2021년 10월 태국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만 회분을 지원했다. 한국이 해외에 지원한 첫 상대국이 태국과 베트남이었다(YTN 2021/10/12).

석할 수 있다.

IV. 전망

빠른 정부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헌법개정예의 의지를 표명하며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군부의 정치관여를 보장하는 현행의 선거제도 및 왕실 개혁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헌법개정안이 작성되어도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헌법개정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헌법개정 과정이 장기화되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반정부 집회가 확대될 수 있다. 현재 반정부 집회의 개최는 코로나19의 감염확대 여부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지만,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熊谷 2021: 186). 그러나 군사정권 집권 하에 작성된 현행의 선거제도로는 다시 총선을 시행해도 정권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선거만 하면 패배하는 기존의 체제에서 선거를 해도 군부가 승리하는 체제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¹⁵⁾ 2017년 헌법에서는 총선거 후 5년간을 민간정부 이양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양기가 만료되는 것은 2024년이다. 이 기간은 상원의원 250명(2024년 이후 200명)을 군부가 임명한다. 총리는 상하원이 함께 선출하는데, 즉 군부가 이미

15) 소규모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하원의원 선거제도(제90~93조), 상원의원의 임명제(제270조~217조), 상원의원의 총리 선출 참가(제159조, 제272조) 등은 여당인 민주당도 비판한 바 있다.

3분의 1의 표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태국에서 총리 임기는 4년 중임제인데, 빠라웃 총리는 2019년 7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재임기간은 2023년 6월까지이다. 그러나 현재 빠라웃 총리의 임기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헌법에서는 총리의 재임기간을 총 8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야당은 2014년 쿠데타 후 빠라웃 총리가 집권한 기간을 포함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임기는 2022년 8월에 만료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생각해도 빠라웃 총리가 모든 임기를 채우고 난 뒤 총선이 실시되는 시기는 이양기가 만료되는 2024년 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2024년 전까지는 상원이 차기 총리 선출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2024년 이후 하원에서만 총리 선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권교체는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정치 갈등의 불안요소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저도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2000년대에 들어와 반복되고 있는 정치대립의 원인인 도시와 지방간 격차, 산업간 생산성 격차, 빈부 격차 등의 경제 격차 및 사회 양극화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더욱 확대되었으며, 고위직 인사들의 부정부패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熊谷 2021: 187-188). 따라서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해도 사회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치적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위축된 태국 경제는 향후 바쁜 속도로 회복되겠지만,¹⁶⁾ 중장기적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른 4차 유행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2022년 경제회복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빠라웃 정부는 지식집약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Thailand 4.0 및 BCG 경제 등 산업고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경제 정책 대부분이 해외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2년

16)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22년 GDP를 4.0%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투자가 위축된 상태라 크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정정불안의 장기화에 따라 위축된 투자 분위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만성적인 노동력 및 인재 부족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태국 내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미얀마를 비롯하여 라오스, 캄보디아로부터의 외국인 노동자에의 의존도를 높여왔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최근 미얀마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태국 노동시장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얀마인 노동자의 유입 및 확보마저 여의치 않아, 그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정치,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민주화 시위와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이 향후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 김민수.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태국 BCG 이코노미 모델.” Kotra 해외시장뉴스. 07월 21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89752 (검색일: 2021.10.24)
- 김흥구 · 이미지. 2021. “태국 2020: 의심받는 ‘타이식 민주주의’와 정치과정의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31(1): 81-112.
- 윤장욱. 2021. “2021년 태국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하반기 경제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 10월 07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91191 (검색일: 2021.12.11)
- 연합뉴스. 2021. “태국 현재 “군주제 전복 의도”...개혁 움직임에 ‘제동’.” 11월 1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1072500076> (검색일: 2022.01.02)
-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2. “코로나19 관련 동향.” 01년 14일. https://tha.mofa.go.kr/th-ko/brd/m_22304/view.do?seq=682&page=1 (검색일: 2022.01.14)
- 朝日新聞. 2021. “タイで反政府デモ再燃 コロナ1日2万人超、失政を批判.” 08월 07일. <https://www.asahi.com/articles/ASP87753NP87UHBI00B.html> (검색일: 2022.01.03)
- 熊谷章太郎. 2021. “コロナ禍後も続くタイ経済・政治の苦境.” 『環太平洋ビジネス情報 RIM』 21(81): 181-207.
- 自治体國際化協會 シンガポール事務所. 2021. “ASEAN における観光政策: タイ・ベトナム・フィリピンにおける地方誘客を

中心に。”『Clair Report』 508.

船津鶴代・塚田和也. 2021. “政治的緊張に揺れるプラユット政権: 2020年のタイ.” 『アジア動向年報 2021年版』 259-286.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アジア経済研究所.

東京新聞. 2021. “タイで洪水被害拡大 30万世帯以上が被災 接近台風に警戒.” 10월 13일. <https://www.tokyo-np.co.jp/article/136622> (검색일: 2022.01.06)

西濱 徹. 2021. “タイで反政府デモ再燃、議會は不信任案否決も、経済、政治ともに視界不良続く.” 『Asia Trends マクロ経済分析レポート』 09월 06일. 第一生命経済研究所.

西濱徹. 2021. “タイ、景氣は最悪期を越えるも樂觀には早く、政治を巡る不透明感は山積.” 『Asia Trends マクロ経済分析レポート』 11월 16일. 第一生命経済研究所.

日本経済新聞. 2021. “タイ改憲論議、一轉先送り 國會で起草會議設置を否決.” 03월 18일.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GS185Z60Y1A310C2000000/> (검색일: 2021.12.28)

日本経済新聞. 2021. “タイ・タクシン派が大規模デモ 政權奪還へ活發化.” 09월 19일.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GS1651Y0W1A910C2000000/> (검색일: 2021.10.24)

Bangkok Post. 2021. “Prayut, ministers survive no-confidence vote.” 09월 04일.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176363/prayut-ministers-survive-no-confidence-vote> (검색일: 2021.12.21)

Bangkok Post. 2021. “Govt links ‘Lisa’ smash hit to ‘soft power’ plan.” 09월 14일.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181267/govt-links-lisa-smash-hit-to-soft-power-plan>

(검색일: 2021.10.24)

Bangkok Post. 2021. “Young Shinawatra appointed Pheu Thai chief adviser for innovation.” 10월 28일.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205667/young-shinawatra-appointed-pheu-thai-chief-adviser-for-innovation> (검색일: 2021.11.11)

Bangkok Post. 2021. “PDRC rallies haunt Thai-born K-pop star Sitala.” 12월 01일. <https://www.bangkokpost.com/life/arts-and-entertainment/2224991/pdrc-rallies-haunt-thai-born-k-pop-star-sitala> (검색일: 2022.01.03)

Bangkok Post. 2022. “Thaksin vows to come home.” 01월 06일.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242711/thaksin-vows-to-come-home> (검색일: 2022.01.06)

CNN. 2021. “Thailand's Prime Minister has survived another no-confidence vote.” 09월 04일. <https://edition.cnn.com/2021/09/04/asia/thailand-prime-minister-confidence-vote-intl-hnk/index.html> (검색일: 2021.11.24)

Krungsri Research. 2022. “Economic outlook.” <https://www.krungsri.com/en/research/macroeconomic/EO/Economic-Outlook-2022> (검색일: 2022.01.06)

MUFG. 2021. “MUFG Thailand Monthly 12월호.” 三菱UFJ銀行 経営企画部 經濟調査室. <https://www.bk.mufg.jp/report/hconwnew/B.pdf> (검색일: 2022.01.02)

Nationtv. 2021. “Poet Prawat Cholnan Srikaew Huana Phak Pheu Thai.” 10월 28일. <https://www.nationtv.tv/news/378849048> (검색일: 2021. 12. 28)

Newsclip.be. 2021. “タイ首相ら10閣僚の不信任案否決.” 02월 22일.

<http://www.newsclip.be/article/2021/02/22/44178.html> (검색일: 2021.11.11)

Newsclip.be. 2021. “タイ政権与党、元麻薬囚が幹事長就任.” 06월 19일. <http://www.newsclip.be/article/2021/06/19/44821.html> (검색일: 2021.10.27)

Newsclip.be. 2021. “タイ政府の甘い見通し、遅い交渉、責任転嫁 ワクチンめぐるアストラゼネカとの内部文書流出.” 07월 20일. <http://www.newsclip.be/article/2021/07/20/45034.html> (검색일: 2021.12.21)

Newsclip.be. 2021. “タイ軍がモデルナワクチン要求 国民、医療関係者には中国製 世論の批判殺到.” 7월 26일. <http://www.newsclip.be/article/2021/07/26/45068.html> (검색일: 2021.12.21)

Newsclip.be. 2021. “タイ政府、「国民を恐れさせる」報道禁止 メディア猛反発.” 07월 31일. <http://www.newsclip.be/article/2021/07/31/45098.html> (검색일: 2021.10.24)

Newsclip.be 2021. “リベラル野党党首が1番人気 タイ・オンライン世論調査.” 11월 2일. <http://www.newsclip.be/article/2021/11/02/45619.html> (검색일: 2021.12.27)

Newsclip.be. 2021. “米主催の民主主義サミット、タイは招待されず.” 11월 25일. <http://www.newsclip.be/article/2021/11/26/45753.html> (검색일: 2021.12.27)

Thailand's Constitution of 2017.

YTN. 2021. “정부, 베트남·태국에 코로나19 백신 첫 지원.” 10월 12일. https://www.ytn.co.kr/_ln/0101_202110121845291376 (검색일: 2021.12.05)

(2022.01.16. 투고, 2022.01.25. 심사, 2022.02.17. 게재확정)

<Abstract>

Thailand 2021: Insoluble Political Conflicts and Social Structural Challenges in the COVID-19 Crisis

LEE Miji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identifies and evaluates the major trends in Thai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2021. The year 2021 was marred by political battles over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and the supply of vaccines. The spread of the delta mutation since April has led to the third wave, increasing the number of daily confirmed cases to 23,000 in August, and Thailand faced its worst situation since the outbreak of the virus. Although vaccinations began at the end of February, the government's initial supply of vaccines was inadequate. Aimed at criticizing the government's ability to manage the infectious disease, the opposition party's non-confidence resolutions against Prime Minister Prayut and key ministers submitted to Congress in February and August 2021 were both rejected. The anti-government movement, which was centered on students demanding democratization since 2020, resumed in August despite the chaos caused by the COVID-19 crisis, and clashed with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began deliberat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showing a willingness to accept the demands of anti-government protesters. However, the government's basic position

on the current election system and reform of the royal family is quite passive. Thai politics, which celebrates the 15th anniversary of the 2006 coup against the Thaksin regime, still seems to be in a stalemate.

Regarding the economy, the government strictly regulated economic activities in response to the rapid spread of the delta mutation, including lockdown measures in 29 provinces, including Bangkok and the metropolitan area. Consequently, the growth rate, which was progressing toward recovery, turned negative in the third quarter. As the spread subsided, the quarantine guidelines were eased and since November, Thailand has opened its borders in earnest, allowing vaccinated travelers to enter the country without quarantine. The decision was made to promote the tourism industry and bolster the slowing economy.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the Omicron mutation, the country temporarily suspended quarantine-free entry two months after its opening. In foreign relations, China has reaffirmed its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ailand through so-called “vaccine diplomacy” amid intensifying international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Thailand’s economy, which COVID-19 had dampened, is expected to recover rapidly, but it is not viewed optimistically in the mid to long term. With fundamental social problems, such as a shortage of labor force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which have yet to be resolved, industrial advancement policies, such as the Eastern Economic Corridor (EEC) development ambitiously proposed by the current government, have not made much progress in recent years. Additionally, economic polarization and income imbalances by region and across industrial sectors, which are the fundamental causes of political conflict, remain unresolved challenges. Therefore, regardless of the government’s political response

태국 2021: 코로나19 위기 속 출구 없는 정치대립과 사회구조적 난제 153

in the short term, political instability is expected to persist in the mid to long term.

Key Words: Third-Wave COVID-19, Vaccine Supply, Non-Confidence Resolution, Anti-Government Movement, Thailand

